

2016년 강북센터 '버럭' 이기월호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김도현



6월 21일 13:00-16:00, 수유역 수유 메가박스에서 저희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영화 워크래프트 : 전쟁의 서막]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영화 '워크래프트 : 전쟁의 서막' 영화관람 프로그램 시작을 위하여 모이는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분주히 움직였다.

1시 되기 전에 수유 메가박스에서 센터직원분과 팝콘과 콜라를 미리

구입하여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한 참여자 분들의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팝콘과 콜라를 드리고 미리 오신 분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약속 시간에 오실 나머지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 둘씩 점점 참여자들이 왔고 배포한 명단과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하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 이제 다 온 거예요?" 명단을 보고 있던 나에게 묻는 참석자들. "아뇨.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 분이 안 오신다. 영화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지막 한 분이 오셔서 [워크래프트 : 전쟁의 서막] 팜플렛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셋~ "한 번 더 찍을게요!!" "오늘 볼 영화가 뭐라고 했죠?" "워크래프트 : 전쟁의 서막" 이요. "게임 영화라는 것 같던데" "아, 그거." "게임 있다는 데요?"

참석자들끼리 서로 이야기꽃을 한참 피울 동안, 영화 영화표를 산 후 계속해서 연락 하면서 위치 파악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 상영관 입장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원체크를 했다. 참가자 명단,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나서 수거하고 두 명당 세트 한 개(콜라, 팝콘)를 나눠 드렸고, 영화관 입장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참여자 수 헤아리고 두 명씩 입장하였다.

"영화 상영하시고 매표소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쪽으로 꼭 와주세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약속한 장소에 다 모이셨다. 배분한 만족도 조사지에 작성하시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들을 보았다.

"선생님, 이번영화는 좀 징그럽긴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이러한 행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즐거웠다. 다음 영화에는 참가자들이 더욱 재밌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차후 영화 관람 프로그램 진행 시 생각해두어야 될 점이 많으니 이번 보다 더 보완해야겠다.





2016년 06월 24일 14시부터 17시까지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님의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있었다. 허성현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센터 회원, 이용자 외에도 함께 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최미경 고문을 비롯하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여성마비협회 '청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등 다양한 장애인단체 및 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님은 인권의 개념 및 특징, 인권의 역사, 사회권, 자유권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김대성 회장님은 인권이란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권은 민중들의 것이며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호존성과 연대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장애인권에 대해서는 장애 및 차별의 개념에 대해 우선 설명한 후 장애인운동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며, 장애문제를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당사자주의에 대해서는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이 목소리를 내야 하듯이 장애인문제에 대해 장애인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데 많은 제약이 받았던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전문가들의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미리 결정되는 측면이 강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장애인은 다른 운동주체와는 달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당사자성이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자기 스스로의 권익향상진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당사자주의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이를 온전히 행사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당사자와 당사자주의에 대해서는 당사자라고 해서 모두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고, 당사자주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제10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1강<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인권>강의는 마무리 되었다.

10기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개강을 알린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인권>이라는 강의는 다소 어렵기는 했지만, 장애인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강의였다.

강의를 준비해주신 김대성 회장님,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함께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6월 27일 ~ 06월 28일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14:00 - 익일 13:00 (오후 2:00 - 익일 오후 1:00), '실무자역량강화워크숍 (상반기)' 박 2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강북센터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1박 2일로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라서 그런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분주히 움직여서 그런지 조금은 어설피보였을 지도 모른다.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과 정종남 소장님, 김소연 선생님, 이번에 우리

강북 센터로 실습하게 된 귀염동이 막내 김도현 실습 선생님, 외부 인사로 섭외된 설미희 시인 선생님과 같이 일정표에 잡힌 대로 1부에 '장애 이동권 투쟁'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어떻게 장애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보여줘서 장애 이동권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장애인 운동가분들에게 처음은 내가 비장애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을 전환하면 존경심과 원지 모를 미안함이 있었다.

'장애 이동권 투쟁' 동영상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 보고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고 우리 동네가 생각이 났다.

우리 동네인 미아사거리는 흔히 보는 음식점 같은 곳에 나를 비롯한 비장애인들에게 출입이 자유로우나 한 편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 제일 안 되어있는 상태고 내가 보기엔 편의시설이 제일 안 된 곳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한다.

2부에는 이지숙 선생님과 활동보조 선생님이신 김두용 선생님께서 합류해서서 우리들과 같이 사훈을 만드는 데 의논을 나눴다. 처음엔 연상되는 단어들을 한두 가지씩 말해보았다. '등불', '하얀 민들레', '월계수', '긍정의 힘으로 함께 힘차게 행복하게' 투표를 통해 득표를 얻게 된 하얀 민들레로 문장을 만들어보았고 SNS (카톡)에 올려 사훈 후보들 중 투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하얀 민들레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등대처럼 앞을 밝히자' 가 제일 많은 득표를 받았다.

그 시간 이후로 자유로이 이야기하며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등 이야기 나눴다. 서로 공감하며 걱정해주고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여 인상적이었다. 다음 날인 28일, 평가회의를 하였다. '장애 이동권 투쟁' 영상과 사훈을 비롯하여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생각 및 소감을 서로 말해보았다.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상반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센터로 돌아가는 길, 깊이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세대에 무르익어 발전을 했지만 정작 이 소식을 읽고 게시 독자 분들을 비롯해 장애인 여러분에게 소홀한 느낌이 들어 불편했던 점을 보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때는……. 한창 장마철인 무렵,
07월 01일 14:00-17:00 (오후 2:00 - 5:00),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제 10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프로그램 2강의 막이 올려졌다.

“ 여기는 이쪽 벽면에 붙여놓는게 좋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는 건 어때요?”

나랑 김도현 실습 선생님과 같이 제 10기 자립생활학교 2강에 관한 붙일 종이와 포스터를 들고 자리 배치해놓았다.

세미나실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과 서로 힘을 모아 책상 배치하고 현수막도 달아놓고 강사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자료를 위해 노트북과 스크린도 체크해보고 모든 준비는 완료하였다. 참여자분들께서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 이번에 강의하실 손연숙 교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 10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번에 개강할 내용은 2강: 아름다운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소식을 읽고 계실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은 의사소통을 단순히 대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하는 자 보다도 말하는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로 있는 자가 중요하다.

“소통이 되어야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호감 가는 표정을 만들 어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아요.”

확실히…….

교수님께서 강의를 재밌게 하시면서 재치 있는 말로 참여자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아름다운 동행에 관련하여 감동적인 영상이 있는데 ‘우유 한 잔의 감동’, ‘형이 좋아요’, ‘국밥 한 그릇- 100번째 손님’ 이다. 나중에 꼭 보시길 추천한다.

정리 다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드는 게 있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 그 이유는 비극적인 사건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지 마 살인 사건, 부모님이 자식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 자식이 부모님을 죽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 등 점점 죽고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고 악 순환이 있다.

나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세상으로 다시 바뀌길 바란다.





06월 30일 14:00 - 18:00 (오후 2:00 - 6:00),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실무지역량강화교육' 임파워먼트 특강에 참여하였다.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김한욱 교수님께서 IL센터 홍보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PR은 조직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동원해서 정

직하고 성실하게 알리는 걸 말한다. (PR = 홍보) 그래서 홍보는 공중과 좋은 관계를 맺는 활동인 것이다.

"자립생활센터처럼 비영리기관 홍보는 어렵죠, 사회복지를 결코 없는 지출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메이저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국가여도 국가에서 다 지원 해준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텐데.....'

효과적 홍보 방법 중 사회복지의 사회변화를 위한 투자이며 성과 측정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외에 언론 및 방송관련 대응 법을 다양하게 알려주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김동기 교수님이 IL센터 사업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사업운영/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서 작성의 기본원칙, 사업운영방식/사업계획서, 평가결과서 작성 방식 등.....

첫째, 센터 간 격차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평가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함. 둘째, 사업안내의 변화를 반드시 반영하여 실행해야 함. 셋째, 자립생활 기본 철학에 충실할 것, 넷째, 기본사업에 충실하고 특히 탈시설 자립지원 포함되어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함. 다섯째, 최대한 계획을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자신의 센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포장 및 수정해야 함.

- 1) 욕구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 기획, 2)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반드시 차후 보고서 작성 시 포함, 3) 계획 대비 80 %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치를 세움, 4) 단위사업 별 세부사업 계획서까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 5) 홍보계획에 출 목표를 고려해서 기획

"자조모임을 비롯하여 간담회를 열어 욕구 조사를 하는 게 좋죠, 사업 평가, 욕구 조사지 작성하면 내년에 계획서 작성 시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사업 평가 할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서 좋았으나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쓸 때 쓰는 요령 등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참 무더운 날씨인 어느 여름, 07월 08일 14:00-17:00 (오후 2:00 - 5:00),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제 10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프로그램 3강의 막이 올려졌다.

김소연 선생님과 김도현 실습 선생님은 같이 제10기 자립생활학교 3강에 관련 붙일 종지와 포스터를 들고 자리 배치해놓았다.

나랑 김성운 인턴 선생님이 자립생활 학교 현수막 배치하려고 할 때,

김두용 선생님과 이병철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리 배치 할 때에도 도와주셨다.

“날씨 더우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체크해보고 모든 준비는 완료하였다. 참여자분들께서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 이번에 강의하실 조한진 교수님께서 오셨다. 드디어 제 10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번에 개강할 내용은 '3강: 탈시설과 인권' 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이 소식지를 읽고 계실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은 탈 시설하고 싶으신가요? 왜 하고 싶은 지 여쭙 봐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탈 시설하게 되면 의, 식, 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후, 회유 되지 않았는지 여쭙보는 것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탈 시설하게 되면 어려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제시해보죠. 결혼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게 하는 의도로 교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려주며 소소하게 웃음을 주셨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교수님이 참여자들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과 강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해소하였다.

탈 시설을 하면 물론 좋을 순 있지만, 아직까진 장애인분들에게 의, 식, 주를 해결 요소는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특히 집구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강북센터 식구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07월 09일 10:00 - 12:00, 자조모임 보치아 프로그램 3차 모임 있는 날이다.

“세팅.....완료!!!”

이은재님, 문봉수님을 연이어 한 석준 회원님의 직장 라이프라인 장애인 자립진흥회 동료 분들 (황성준님, 조재현님, 조재현님의 활보 선생님이신 정인화님)도 합류하셨다.

심판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황성준님이 심판으로 다른 참여자들끼리 시합을 하였다,

청팀 대 홍팀으로. 스텝도 참석해서! 참여자들과 즐겁게 시합 경기를 해보았다.

시합 점수를 매기면서 유심히 보고 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얀 표적 공을 적당한 거리에 투척 후 붉은 공과 푸른 공이 하얀 표적 공에 가까이 할수록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중간에 선수 교체 하면서 팀별로 시합 경기를 진행하였다. 개인 경기도 해보았다. 조재현 회원님 대 김옥영 회원님을 이어 이은재 회원님은 박남주 선생님과 개인 경기를 해보았다. 조재현 회원님 대 김옥영 회원님 개인 경기에선 우승부, 이은재 회원님 대 박남주 선생님 개인 경기에서는 승부 뒤집기 이은재 회원님께서 이기셨다.

참가자분들께서 즐겁게 경기하시다 보니 그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였다.

“배달 왔으니까 저희 식사해요~.”

프로그램 진행 전에 관리 선생님께 미리 양해 구해서 복지관 내 지하 식당에 배달 온 중국집의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꽃을 펼쳤다.

식사 후 정리 정돈 다하고 나서 각자 집으로 해산하는 회원 분들께 인사드리고 헤어졌다.

보치아 3차 프로그램 모임 후.....



점점 색다른 참여자가 오셔서 좋았다. 오늘처럼 서로 응원하면서 경기를 즐겁게 임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Challenging you is beautiful.

挑戦するあなたもきれいですよ。

도전하는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눈앞을 뚫아가는 눈부신 낮. 07월 19일 실습생인 김도현 선생님과 같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여 박동렬 사무국장님의 뒤를 따라 오카베 고우슈케 교수님과 정희경 교수님께서 옥고 계신 글래드호텔에 가서 조금 기다리니 두 분이 내려오시자 같이 한국DPI(장애인연맹연대)가 있는 이룸센터로 이동하였다.

한국 DPI에서 미팅으로 한국 DPI 회장인 김대성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 활동 보조 이용시간과 양 및 일본의 활동 보조 이용시간과 양 등을

오카 베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 차이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소식지를 읽고 계실 독자 분들은 한국 DPI 회장인 김대성 회장님을 낫먹어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성 회장님은 자립생활 학교 1강 강사로써 강의를 하신 적 있으시기 때문이다.

미팅 끝나고 식사 후 나 문지수 간사랑 김도연 선생님은 바로 이룸홀로 가서 문이 열리자마자 선생님들과 같이 세미나 준비 세팅을 해놓고 점검하고 나니까 참여자가 한 두 분씩 점차 많아져 이룸홀 안으로 입장하였다.

14:00 - 17:00 (오후 2:00 - 5:00),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한일국제세미나’ 프로그램 행사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이번 한일국제세미나에 좌장으로 역할을 맡으신 최미경 고문님의 주도 하에 오카베 고우슈케 교수님, 최복천 연구위원님, 김치훈 정책연구실장님, 최미경 고문님, 정양균 우리 강북센터 체험형 입주자님 순서로 발표가 시작됐다.

특히, 오카베 교수님 말씀 하실 때 옆에 정희경 교수님께서 통역 및 번역을 하시며 큰 어려움 역시 해결되었다. 차례대로 발표순서가 끝나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나 보다,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 상 어쩔 수 없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일이 못한 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일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행사가 끝나고 나서, 듣는 내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유익한 정보이면서 내용 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일본은 사실 장애 복지를 비롯해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다, 그건 이미 TV를 비롯한 매개체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처럼 복지 측면에 잘 갖추어져 나날이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 중에 활동 보조 이용 시간 또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이 되었으면 한다.





정양균씨가 자립생활주택에 입주 하신 지도 어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상당하신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혼자서 지역 사회활동도 찾아다니시고 사람들과도 먼저 다가가서 소통을 하실 만큼 적응을 잘 하셨다.

3년차에 접어든 2016년에는 센터지원사업의 개별 ILP로 그토록 염원하던 고향방문을 계획하여 코디와 함께 오랜만에 고모님도 뵈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강북센터 주최의 '지역/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 한일세미나에서 패널로 발표까지 하실 만큼 자립기술이나 본인

역량이 도약하셨다.

한·일 세미나 발표를 준비하며 고향방문 소감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 때 코디에게 표현한 정양균씨의 심정을 적어보자면, 6월 19일 ~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하여 코디와 함께 교통편, 숙박, 식비, 연락하여 만날 사람, 체험 등을 알아보며 세상 생각나는 예전 기억에 고향방문 당일 아침까지 하루하루 설레 이는 마음이셨다고 한다.

드디어 여행 당일 날 아침, 환하게 웃으며 맞아하시는 정양균씨를 뒷 자석에 모시고 전라남도 고흥 오천리 금산면으로 향했다. 날씨도 좋고 차도도 땡 돌려 뱅뱅 달릴 수 있어서 기분 좋다며 흥이 나신 정양균씨가 본인의 예전 이야기를 쏟아내셔서 8시간 동안의 긴 운전 시간이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았다.

가는 길목에 식사 시간 때 마다 휴게소에 들러 간식도 사 먹고 생리현상도 해결했는데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한일세미나 발표 때 사용할 인터뷰 영상 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정양균씨 인터뷰 영상을 보면 제일 첫 촬영에서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라고 답하셨는데 설레기도 하고 긴 시간 운전을 하며 가는 여행이니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도 된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코디가 여자고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서 노파심이 드신 것 같았다. 하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휴게소에 들러서 찍은 인터뷰 영상에서는 걱정심은 찾아볼 수 없고 햇빛을 받아 더 환한 표정의 정양균씨가 고향방문에 어린아이처럼 들떠 기뻐하는 모습만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고향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걱정보다는 설레고 기쁜 마음이 더 커진 듯 했다. 그렇게 무사히 고흥군에 들어서고, 서동 쪽 고트머리 고흥에서도 한참을 더 달려가서 도착한 정양균씨의 고향. 정말 작은 어촌마을이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길이 트이고 다리가 생겨서 배를 타고 가던 길을 차로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양균씨가 기억하는 예전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양균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서촌마을에 들어서니 가는 곳곳마다 정양균씨를 아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정양균씨가 마을의 유일한 장애인이었는데 다가 어릴 적 본인을 키우시던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나이에 시설로 보내진 점을 마을 모두가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리운 고향을 방문하고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온 정양균씨는 한동안 코디 얼굴만 보면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본인의 고향방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한·일 세미나 발표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침착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내년 한·일 세미나 발표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ㅋㅋ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대비 준비사항

- ◆ 무더위 기상상황을 매일 확인한다.
- ◆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한다.
- ◆ 실내외 온도차를 5° C 내외로 유지한다.
- ◆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일반가정 등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 12시 ~ 5시 사이 활동을 자제한다. ◆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를 피한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고령, 독거노인, 신체어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요청한다. ◆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직장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경기 등 외부 행사를 자제한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 ~ 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한다. ◆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한다.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체육활동 및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단축수업, 휴업 실시를 검토한다.
도로·철도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C이상 예보 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해 도로상에 물을 뿌린다. ◆ 레일온도 상승에 따라 서행운전, 운행중지 및 물을 뿌린다.
산업·건설현장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진다. ◆ 장시간 야외근무 시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한다. ◆ 작업 중 15 ~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한다.
어류양식장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는다. ◆ 수온이 낮은 지하해수를 공급한다. ◆ 액화산소를 공급한다. ◆ 정전대비 발전기 작동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농가·축가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 전장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한다. ◆ 비닐하우스 차광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한다.

출처- <http://www.gangbuk.go.kr>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 간염	HepB	2,270
	DTaP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6,300
	Td	12,620
폴리오	Tdap	19,640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일본뇌염	JE(사백신)	4,840
	JE(생백신)	11,45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JE(사백신)	4,840
	JE(생백신)	11,450
페렴구균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280
	PCV(단백결합) 10	52,270
A형 간염	PPSV(다당질)	20,090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당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료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출처- <http://www.mohw.go.kr>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시행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을 2016년 08월 31일(수) ~ 2016년 09월 01일(목)까지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동료상담가 보수교육과는 달리, 2박 3일 집중강좌로 진행하고, 집중강좌를 통해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꾀하며,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5명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www.kbcil.c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메일(kbcil@hanmail.net)로 접수하거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팩스(0303-0799-1758)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계형 팀장(02-908-7776)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 내용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 기간 : 2016. 08. 31 (수) ~ 2016. 09. 01 (목)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모집인원 : 서울시 거주 장애인 5명
- 모집기준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선발하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집 기준에 의해 선발함
- 신청방법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팩스 : 0303)0799 - 1758
 - 이메일 : kbcil@hanmail.net
- 주최/주관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후원 : 서울특별시
- 센터주소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16년 07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두용 김소연 김소연 김숙이 김석현 김은미 김은순 김용자
김종환 김중민 곽광현 박계형 박남주 박동열 박시연 박민숙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안병훈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하용 이화선
임상욱 오재준 우의정 윤두선 장민정 전난희 정주영 최양호 최윤숙
최전균 황석재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 정종남 편집 : 편집위원 발행일 : 2016년07월31일

<http://www.kbcil.co.kr> 전화 : 908-7776 팩스 : 0303-0799-1758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906호